

패널토의

토론참석자

- 黃鍾善 <사회·고려대교수>
- 李宗淳 <체신부정보통신과장>
- 李相德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姜鎔中 <쌍용컴퓨터이사>
- 金顯稷 <삼미전산 사장>
- 宋官浩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 李相壹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비기준연구실장>



▲李宗淳 과장

표준화는 일종의 입법과정이므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기술표준, 기능표준, 제도표준 등 표준화 각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식화하여 확정짓는 구도가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데이터통신 등 일부에서만 표준화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업계와 소비자단체측에서는 소극적 자세를 보여 왔다.

앞으로는 이들의 적극 참여를 권유하는 한편, 그 대상과 분야를 긴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것을 우선순위로 결정해 가며, 표준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체제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李相德 연구위원

표준화의 필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방법을 신중히 연구해야 한다.

표준화는 기술적인 것이므로 자칫 모든 표준제정에 인간적인 요소를 소홀히 하기 쉽다. 모든 일이 인간중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준화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 예산과 인력에 대한 제도적인 명문화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 정보산업은 각 이해단체간의 갈등이 심하다. 따라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력 있는 기관에 의한 추진이 요망된다. 아울러 표준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姜鎔中 이사

우리 나라는 표준화와 관련하여 축적된 노우하우가 부족하다. 따라서 어떤 것을 결론내리기 전에 시험운용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론에 이르러서 시행착오를 내는 것보다 중간점검을 시험운용이란 방식을 통해 하자는 의미다.

지금 우리의 표준화 관련 제반사항은 책이나 논문에 의한 경험으로만 논할 입장이 못된다. 현장 경험이 가장 든든한 힘이라는 것은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운용되고 있는 SDN(연구망)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 시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金顯稷 사장

네트워크를 논의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업계로서는 짧은 역사를 가진 네트워크 경험이 적다.

이 짧은 경험 가운데서 확실하게 피부에 와 닿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용자의 요구에 공급자가 귀를 기울이지 않다는 점이다.

한가지 예로 지난번 제정된 KS한글코드만 해도 KS 한글코드 전용 마스크롬을 제작, 정부차원에서 공급한다면 값비싼 EPROM을 사용하게 되는 데 따른 손실을 감소시켜 주는 한편 이의 사용 보편화에 의한 자연스런 표준화가 이룩되는 것이다. 현재 이기종간 통신이 가장 시급한데 메이커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 李相壹 실장

우선 표준화의 대상과 우선순위 결정, 추진주체 수립이 시급하다. 한꺼번에 하려다가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부차원에서 선정, 일을 완급에 따라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이다.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자발적 참여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집단이 많고 해야할 업무가 다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역할을 담당할 완충기구가 필요하다.

공진청의 인증기능을 따르는 문제도 감안해야 하며, 채택된 표준을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보급시키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표준화의 유지관리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



▲ 宋官浩 선임연구원

표준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다음의 문제들이 따른다.

첫째, 표준화 대상의 범위이다. 네트워크 부분만 할 것인가 또는 정보처리 전반에 걸쳐 할 것인가부터 정하여 추진하려는 영역을 확실히 해야 한다. 둘째, 적용대상 문제이다. 국가전산망은 전반적 표준화가 필요하나 그 외에는 요구가 다양하다.

세째, 추진주체가 모호하다. 전산망은 토털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KS표준은 공진청, HW는 상공부, SW는 과기처라는 역학관계가 있다. 네째, 법적지원이 미약하다. 다섯째, 인력·예산·업계협조 부족으로 이를 위해 비정부기관을 추진주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